

이름: 문혜연 이메일: _____
 나이: 살 학년 거주지역: 인천 계양구
 본 행사 참여경험(우측 해당란에 √체크해 주세요): 2013 2014 2015 처음참여

제목 : 나.

하루하루가 비슷하게 지나간다. 쫓겨난 일이나 애를 들이기엔 잠시 합심
 돌리자 애를 하곤서진 학원보내리 러려인. 간식 생겨수인 저녁 머리
 잡다한 생각안하리. 늘 나만의 시간이 없다며 혼자만의 시간을 갈구한다.
 우연히 도서상 그림들 라일라 등이를 하게 되었다. 인듯이 나만을 위한시간.
 인듯이 보임이 있는 남이로 내가 사선지를 해서 받들하는 남이다.
 할때 아무로 처음인 듯하다. 무언가 준비해서 받들하는 일. 준비할것도 별로
 없었지만 혼자 색칠한 혼자 찾아온 혼자 생각하리. 아이들을 위한 준비가
 아닌 나만을 위한 일. 거창할 것도 매우 특별한 것도 아니지만 오랜만에
 느껴보는 즐거움이었다. 소하지만 나를 위한 시간을 많은 즐거움을
 느껴가라하면 아이들을 대할 때 조금 더 부드럽게 행동하게 될것
 같다. 늘 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기다림을 바라면서도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면 의뢰를 다르게 행동하는 나를 발견한다. 그리고 실망..
 너무 자주 반복하지 않도록 자주 생각하리 생각해서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리
 있다는 점 많이 아님 아드네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다. 그러기위해서라도 나를 위한 일들을 많이 많이 해야겠다.
 내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한 테니까.
 열심히 살아보자 !!

16. 05월 12일 일기.. 새롭긴한데 뒤늦게쓰면 느낌 ㅠ.ㅠ.

용지가 부족할 경우 다음 장을 사용해 주세요

"5월 12일 일기 수집 이벤트"는 인간과기억아카이브와 영국 서섹스 대학교의 대중관찰아카이브 (MOA: Mass Observation Archives)가 공동 주최하는 역사프로젝트입니다. 기증하신 일기는 21세기 한국인의 삶과 문화를 기록화하는 중요 자료로써 학술연구와 교육, 전시, 출판 등 문화 콘텐츠로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귀하의 콘텐츠 공개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 네, 동의 합니다.
-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문 학술연구진만 제 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참여도 가능합니다. <http://omeka.hmarchives.org/>